

ESCO 전문인력양성, 협회가 나선다

ESCO협회(회장 유제인)가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협회는 지난 5월 29일 한국폴리텍 I 대학교(학장 이상덕)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ESCO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각 분야의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첫 교육으로 5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분석기법과 운전·유지관리 및 에너지진단 등 실무교육 과정을 한국폴리텍 I 대학에서 실시했다. _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중·단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뿐만 아니라 효율적 사용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위해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전문인력 양성교육 모습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교육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을 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07년 인력양성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다. 이 중 에너지기술 인력 12억 원, 신재생에너지 인력 18억 원, 전력 인력양성에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 에너지기술팀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산업대, 산업기술대, 아주대학교 등 3개 대학의 '에너지기술인력 양성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매년 산업분야에, 중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조명 실제와 전망' 등 에너지효율관련 교육은 물론 OECD 국가들 중

가장 앞서 있는 일본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분야에서의 에너지 이용효율개선 잠재량을 전망하고 이 분야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SCO 인력양성에 양기관 협력 정기적인 실무교육 마련

ESCO협회는 고효율에너지 전략 수립과 산업공정에서의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국폴리텍 I 대학과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노동부 지원 중소기업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무료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ESCO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단추로 ESCO 실무자의 관리와 역량강화를 위해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관리 실무과정'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CDM사업', 에너지진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약 40여명의 회원사 직원들이 참석해 ESCO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했다. 또, 협회가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자 이에 대한 업계반응도 호의적이어서 긍정적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9일,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경제성 분석 기법'과 '소형열병합발전 도입 표준화 모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서울도시가스(주) 백영호 과장이 담당했다. 백 과장은 강의를 통해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정의와 발전기의 운전형태, 운전시각, 열부하 산정 등을 설명했다. 또, 열병합발전이 도입되는 백화점, 상점, 호텔, 병원 등의 각 부하 특성과 열부하 분석기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운전중인 발전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30일에는 (주)상원이엔씨 박복용 이사가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설비의 운전 및 정비유지관리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 소형 및 중형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된 병원, 학교, 대형건물 등에 다양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설비의 운전과 정비서비스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설비의 운전과 정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또, 발전기의 대·소형에 따라 시동 전후 및 구분에 따른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계획적인 정비와 정비시 주의사항, 발전소 운영조직과 업무, 발전기 고장사례 등 종합정리의 시간을 가졌다.





▶ 이상덕 학장과 유재인 회장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인해 업계 관심이 높아진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강요도 개설됐다. (주)에코아이 임송택 이사가 '기후변화협약 및 청정개발체제사업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임 이사는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동향과 함께 국내동향을 설명하고 CDM사업 절차와 추진절차를 소개했다.



▶ 산학협력 협약 체결식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은 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너지이용효율 향상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평가해 감축실적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된 CDM사업 중 UNFCCC에 등록까지 완료한 CDM사업은 14건이며 이중 최초의 CDM사업은 울산화학 HFC 열분해사업으로 연간 CO₂감출량은 140만tCO₂이다.

임 이사는 "국제 배출권거래제는 새로운 시장 출현과 산업,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올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진단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ESCO협회는 이번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해 연간 2차례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CO 인력양성에 양기관 협력

협회는 지난 5월 29일,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함께 폴리텍 I 대학과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제인 회장을 비롯해 이범용 부회장, 황건희 부회장 등 ESCO협회 측 인사를 비롯해 이상덕 학장, 산학협력단 구연원 단장 등 폴리텍 I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의 발전과 직업훈련의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확보 및 ESCO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분야의 교육활동과 국가 에너지절약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전문교육 등 각종 사업에 서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유제인 회장은 “ESCO사업에서 응용 가능한 기술과 보유하고 있는 산업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폴리텍 I 대학과의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덕 학장은 “폴리텍 I 대학이 ESCO분야 인력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술, 정보 등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

자”고 답했다.

이번 산학협력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술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교육을 공동추진하고 기술분야의 상호자문활동과 주요사업 및 학술 정보의 상호지원을 하게 된다.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전문인력과 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지금 이번 산학협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국폴리텍 I 대학

한국폴리텍 I 대학은 지난해 3월 기존의 공공직업훈련을 전담해 온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총 43개 기관이 7개 지역 거점대학과 4개의 특성화대학으로 통합돼 11개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기존 2년제 학위과정을 담당하던 기능대학과 1년제 기능사 양성이 주 업무였던 직업전문학교를 권역별로 통·폐합, 대형화·지역분권화해 경영효율성을 높였다. 또, 교육훈련사업 대상을 주부, 재직자, 비정규직, 군전역자, 새터민(탈북자)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주문식 훈련과정을 강화해 국내 유일의 직업종합교육·훈련기관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폴리텍대학(Polytechnic Colleges)은 호주,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적으로 ‘종합기술전문학교’ 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새로운 직업교육 패러다임과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는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여자, 바이오, 항공, 섬유패션 등 4개 특성화대학과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등 권역별로 한국폴리텍 I ~VII대학으로 구분되며 기존의 직업전문학교를 19개 지역캠퍼스로 명칭을 변경, 통합 운영하고 있다.